



## 신년법어

### 사회를 지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효강 불교총지중 종령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께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종단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나라의 부강과 국민안,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공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과 국력을 자랑하게 된 것도 우리들의 불공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총지중이 창종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종단이 이처럼 알차게 발전한 것은 그 동안 모든 승직자와 교도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법에 의지하여 새 종풍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서 우리 종단이 사회를 지도하는 훌륭한 종단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재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 신년사

### 제2의 창종정신으로 발전하는 해



지성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올해는 정통불교 총지중의 대광명이 이 땅에 드리우고자 개산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간난신고를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합심과 단결로써 헤쳐 오면서, 흔들림 없는 종지로 오늘의 우리 총지중이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지중이 불교계 주요 종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조 원정대승사께서 총지중을 창종한 이후, 그 동안 수많은

은 원로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량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밑받침을 펼쳐주신 원정대승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종단을 위해 애써주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종단적으로 바쁜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교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의 신심은 더욱 깊어지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신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총지중은 창종 40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집착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종단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2의 창종정신으로 종단의 발전과 이 땅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시도록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 종조법설

정진 중에 일어나는 마장(魔障)은 곧 법문이라. 우리밀교 삼륜신(三輪身)은 행자(行者)에게 법을 주어 자기허물 결집 등을 체험으로 알게 하고 육행실천 하게함이 법신불의 서원이라. 아직 증득 못한이는 마장이라 하지마는 모든 지혜 밝은이는 법문이라 하느니라.

# 힘찬 도약과 전진의 총기 40년이 밝았습니다

—• 창교절을 맞이하여

## 새로운 각오와 종풍운동의 참 실천



▲ 창종 38주년을 맞이하여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가 법어를 하고 있다.

불교 총지중이 의뢰와 수법을 갖 추고 정통 밀교로 창종한 지 38주년을 맞이했다.

총지중은 원정 대승사가 1972년 12월 24일 서울 상봉동에서 선교부(宣敎部)를 개설하여 창종식을 거행하면서 '불교총지중(佛敎總指

宗)'을 선포한 바 있다.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각 사원에서 주교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법회를 봉행 했다. 각 사원에서는 종령 예하의 창교절 유시문(諭示文)을 통하여 창교절 의미를 스승과 교도에게 전달했다.

총지중 본산인 총지사 법회에 참석한 효강 종령 예하는 창교절 법어(法語)에서 "우리종단은 한국 밀교의 대표종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제재가불교의 대표주자로 우뚝 솟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조님의 대비원력 유훈을

받들어 창종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각오와 종풍운동을 실천하자."고 했다.

종령 예하는 추계강공회에서 밝힌 5가지 새로운 종풍운동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 할 것을 스승과 교도에게 당부했다.

스승들은 종령 예하의 법문을 통하여 중생제도가 제의 목표라는 것과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화합과 단결이 최선임을 받아들였다.

봉행식에는 총지화 전 총리원장, 일성혜 기로스승, 대도행 기로스승, 선도원 주교와 총지사 스승들, 화령교육원장, 법경 정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봉행식 이후에는 공연이 있었다. 선도원 전수는 "교도와 창교 뜻을 같이 새기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하여 공연을 마련 했다"고 말했다. 먼저 총지사 중앙단원의 음성공양이 있었다. 또한 교도와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를 불러 창교 기념을 뜻 깊게 했다.

이어서 이대진 각자의 크로마하프 연주와 강세영 교도의 2명이 가 아금병창으로 '풍년노래'를 불렀다. 특히 진도아리랑 민요를 부를 때는 교도들이 춤을 추어 흥겨움을 더했다.

< 박종환 기자 >

## 어려운 교도가정에 보시금 전달

### 사회복지재단에 들어온 후원금

추운 겨울날 훈훈한 사랑의 손길이 속속 전해져 따뜻함을 주었다.

총지중 서울.경인교구지회 시정 정사와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은 12월 27일 서울경인교구회의에서 보시금 180만원을 지성 사회복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 보시금은 지난 여름에 열린 '호국안민 구국법회'에 참석했던 서울경인교구지회 스승과 교도가 낸 자비성금의 일부이다. 또 부산경남교

구 신정회 신인록 지회장은 일백만 원을 사회복지 재단에 보시하였다.

그리고 개천사 한영란 교도, 밀인사 김희정 교도, 박지영 교도, 황지영교도가 각각 일백만원의 정성어린 보시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다.

이밖에도 전국의 많은 교도들이 일정한 보시금을 사회복지재단에 주었다. 참여자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담당자 이혜숙 교구는 "연말이

다가오므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년동안 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단에서는 이 후원금을 가정이 어려운 교도에게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한편, 부산경남 교구는 지난달 전주 흥국사를 방문하여 요양중인 교도에게 일백만원을 보시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표방하고 실천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대도

# 불교총지중

##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종령 효강 대종사**  
**총리원장 지성**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사감원장 법상인**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강**

**총무부장 인선**  
**재무부장 시정**  
**교정부장 수현**  
**사회부장 우인**  
**총리원 임직원 일동**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시정**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지광**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법우**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일동**

**(재)사회복지재단**  
**중앙총의회 위원**  
**총지중 유지재단**  
**국제문화센터건립 추진위**  
**전당건설 위원회**

**법장원**  
**밀교 연구소**  
**총지중보 및 종보통신원**  
**바라밀공부방**  
**효사랑상조회**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팩스 02)552-1082 www.chongji.or.kr

창종 제38주년 창교절 종령 유시문

# 창종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다져 중생제도에 힘써야



효 강

(불교 총지종 종령)

오늘은 우리 총지종이 창종된 지 서른 여덟 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뜻 깊은 창교절을 맞이하여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과 함께 자축을 하고자 합니다.

종조 원정 대승사께서 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신 것은 이땅에 밀교종흥의 씨를 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한국불교사의 일대사로서 그 위대한 업적을 오늘의 우리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의례와 비밀불교의 비법(秘法)과 경계(經軌), 다라니의 수법들이 신형밀교의 탄생으로 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흥복(洪福)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종단이 38년간 걸어온 발자취는 많은 변화와 발전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밀교의 대표종단으로 자리매김해왔고, 또한 대외활동과 영상포교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작금에는 국제불교의 대표주자로 우뚝 솟았습니다.

이제는 종조님의 위신력으로 승단과 교도의 일치 단결로써 하나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중생을 제도코자 하는 종조님의 대비원력과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야 한다는 유언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종조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성에 젖은 생활과 안일한 생각에서 근래에는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38주년 창교절을 맞고 보니 종조님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창교절을 맞는 종도들의 자세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최측하는 바입니다.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종단 중흥의 새로운 각오와 함께 새로운 종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단의 제일 목표는 바로 중생제도, 둘째 또한 중생제도입니다. 중생제도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종단발전을 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곧 종단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수행에 전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하여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외형과 지식만으로는 종단의 발전과 수행의 진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수행이 우선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기 수행이 만법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조님의 창종 정신은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중생들을 제도코자 하는 것이 창종 정신입니다. 종조님의 창종 정신과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수행정신은 오늘의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분발을 최측하고 있습니다.

그 분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무미건조해진 자신의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는 일입니다. 종단발전과 자신의 정신수행은 각자의 수행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자세와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전 교도들의 분발을 최측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염송정진을 당부드립니다.

나태와 안일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현실의 타협(妥協)과 안주(安住)로는 발전과 진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무릇 송곳 끝에 앉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 반성으로 생활해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 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종풍운동을 주창하며 활발히 전개해 나갑시다.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

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표방하고 실천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종풍을 일으켜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종단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합은 승가(僧伽)의 생명이자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깊은 창교절에 마음 가득히 환희심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지니고 부처님의 지혜가 증장하고, 복덕이 무량하기를 서원하는 바입니다. 성도 합시다.

총기 39년 12월 24일

종령 효강 합장

## 지성 원장, 룸비니 유럽사원 개원식 참석



▲ 행사에 참석한 지성통리원장.

지난 12월 8일 지성통리원장과 종단 간부를 비롯한 22명의 축하 사절단이 네팔의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유럽사원 개원식에 축하사절로 초청 받아 참석했다.

통리원장 이외에도 범공 전 통리원장, 화령 교육원장, 인선 총무부장, 만덕장 김은숙 신정회 경인지회장, 강경중 전 동해중학 교장 등 교도대표 22명이 참석한 이 개원법회에는 탕텐 센터의 곤자르 린포체와 네팔 문화부장관, 룸비니 개발위원회 등 50여 명의 내외귀빈들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총지종이 유

일하게 초청을 받았다.

이 사원의 정식 이름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바른 길을 가는 사원'이며 티벳 계통의 사원인데 오스트리아 불자들이 주축이 되고 스위스, 독일, 헝가리 등 유럽과 티벳 명령 불자들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그동안 총지종이 주관한 국제 재가불교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지성 통리원장은 대형 관세음보살도를 증정했으며 김은숙 지회장과 동참교도대표들은 금일봉을 전달했다.

## 총지 청소년·어린이 겨울 스키캠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총지 청소년·어린이들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겨울 어린이 스키 캠프를 모인다. 통리원은 매년 여름에 개최하던 캠프를 겨울로 옮겨 학생(초·중·고등생)들이 눈 속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스키캠프를 연다.

캠프를 항상 여름에 가졌던 행사를 겨울에 여는 것은 처음으로 모인다. 통리원은 매년 여름에 개최하던 캠프를 겨울로 옮겨 학생(초·중·고등생)들이 눈 속에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스키캠프를 연다. 캠프를 항상 여름에 가졌던 행사를 겨울에 여는 것은 처음으로 모인다. 그동안 해수욕장과 인근 전 통문화 체험과 박물관 견학을 다녀왔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를 주기위해 겨울에 개최한다.

## 김수경 교무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임명



▲ 김수경 교무

2011년 1월 1일부로 시설장으로 임명되었다.

부산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수경 교무(사진)가 시설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수경 시설장은 "센터의 아동들이 즐겁고 유익한 생활과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수경시설장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재원이다.

- 알림방 ▶ 1월 3일(월) ~ 1월 10일(일) 새해 불공
- ▶ 1월 13일(목) 신년 하례 법회
- ▶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청소년·어린이 겨울 스키 캠프
- ▶ 1월 29일(토) 종조 탄신일

## 신년하례법회 1월 13일 봉행

불교총지종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총지사에서 전국의 스승과 기로스승, 교도가 참석할 가운데 신묘년 하례법회를 봉행한다. 효강 종령 예하는 총기 40년을 맞이하여 종단이 발전한 내용이 담긴 법어를 할 예정이다. 지성 통리원장은 창종정신을 재정립하고 더욱 쇄신하는 종단

으로 힘쓰시는 신년사가 나온다. 이날 법회 후 스승은 서로에게 인사의 예를 한 후 신년덕담을 나눈다. 한편, 1월 29일은 종조탄신일 법회가 있다. 서울 경인교구 소속 사원의 스승과 교도는 총지사 종조기념관에 모여 법회를 봉행한다.



▲ 창종 38주년을 맞은 12월 24일 총지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강세영 교도가 민요를 부를 때 총지사 교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흥겨워 어깨춤을 추었다.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11/29 10,000	기로원 상지화 12/20 10,000	밀인사 이희원 12/13 10,000	수인사 김봉기 11/29 10,000	정각사 이정선 12/17 5,000
개천사 손태삼 12/17 30,000	기로원 수중원 12/20 10,000	밀인사 정정희 11/29 5,000	수인사 장영택 12/1 50,000	제석사 박광자 12/17 10,000
개천사 이희권 11/29 10,000	기로원 총지화 12/20 10,000	밀인사 최서진희 12/20 750,000	승천사 김원봉 11/26 15,000	총지사 김성민 12/16 50,000
개천사 장진식 12/22 20,000	기로원 최상관 12/22 100,000	밀인사 황지영 12/20 1,000,000	승천사 지선행 11/26 15,000	총지사 록 경 12/20 10,000
개천사 한영란 12/14 1,000,000	기로원 혜 암 12/22 200,000	백월사 김문찬 12/22 10,000	시범사 환수원 12/20 10,000	총지사 선도원 12/20 10,000
관성사 경 관 12/15 10,000	단음사 법연지 12/17 5,000	백월사 김주연 12/7 10,000	실보사 이순옥 12/6 5,000	총지사 최해선 12/20 20,000
관성사 김봉기 12/16 10,000	단음사 천 공 12/6 4,000	백월사 김현중 12/7 10,000	실보사 정법계 12/16 10,000	해정사 박종석 12/13 20,000
관성사 대도행 12/15 10,000	덕화사 법 등 12/17 20,000	백월사 진 평 12/17 5,000	실보사 정법계 12/23 10,000	화음사 강순란 12/3 5,000
관성사 박현숙 12/2 10,000	만보사 민순분 12/10 60,000	법천사 김정숙 12/2 5,000	실보사 조순애 12/9 50,000	흥국사 지 정 12/20 20,000
관성사 황성녀 11/30 10,000	밀인사 김덕배 11/30 20,000	법천사 시 정 12/20 10,000	실보사 해 정 12/16 10,000	박말조 12/20 5,000
교산수련원 권성수 12/15 50,000	밀인사 김덕배 12/23 20,000	법천사 원만원 12/20 10,000	실보사 해 정 12/23 10,000	안효정 11/29 20,000
기로원 대관 12/20 10,000	밀인사 김희정 12/20 1,000,000	벽룡사 양정현 12/22 10,000	실지사 송우섭 12/20 5,000	이혜원 11/30 5,000
기로원 대자행 12/20 10,000	밀인사 묘심해 12/8 10,000	벽룡사 양지현 12/22 10,000	실지사 이화수 12/15 10,000	임동수 12/21 30,000
기로원 밀공정 12/20 10,000	밀인사 박지영 12/20 1,000,000	벽룡사 이종호 11/30 35,000	실지사 경우석 12/16 10,000	최순진 11/29 20,000
기로원 법수원 12/20 10,000	밀인사 원 당 12/8 10,000	삼밀사 원 송 12/3 10,000	운천사 반야화 12/15 10,000	최순진 12/20 20,000
기로원 법장화 12/20 10,000	밀인사 이연수 12/19 10,000	삼밀사 인법계 12/2 10,000	자석사 조창환 12/13 10,000	
기로원 법지원 12/20 10,000	밀인사 이재갑 12/8 20,000	선립사 심지장 12/20 10,000	정각사 구정희 12/23 20,000	
기로원 불멸심 12/20 10,000	밀인사 이재호 12/10 20,000	선립사 정복지 12/20 10,000	정각사 박동휘 12/22 10,000	
기로원 사홍화 12/20 10,000		성화사 무명씨 12/14 50,000	정각사 신인록 12/20 1,000,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자료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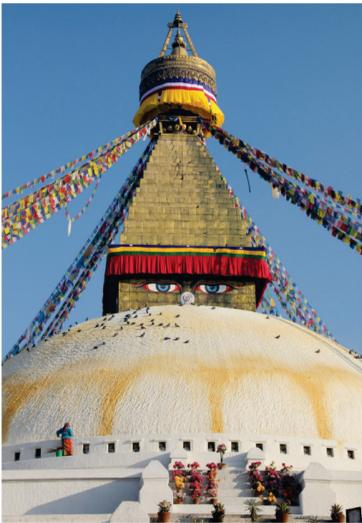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인도 - 불가사의한 나라

# 인간과 자연, 원시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곳

이 글은 화령 교육원장이 네팔의 룸비니에서 거행된 오스트리아 사원 개원법회에 초청받아 종단의 축하사절단과 함께 네팔과 인도의 불교유적지를 둘러보고 쓴 소감문이다. 지면 관계상 탐방한 곳의 자세한 소개를 생략하고 유적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네팔과 인도, 그리고 탐방 과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감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카트만두의 보드나트 대탑

지난 해 12월 6일에서 16일 까지 11일에 걸쳐 네팔과 인도를 방문했다. 방문의 1차 목적은 네팔의 룸비니에 세워진 오스트리아 사원의 개원식에 초청을 받고 지성 통리원장님, 민덕장(김은숙) 신정회 경인지회장님을 비롯한 종단의 축하사절단과 함께 개원을 축하하러 간 자리였다. 그리고 공식 초청 일정을 마치고 인도로 넘어가 인도의 불교유적지와 함께 인도 문화를 체험하는 10박 11일의 일정이었다. 네팔 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를 복원하여 관광 수입을 늘리고자 각 나라에 땅을 할애하여 절을 짓게 했다. 여기에는 대만, 스리랑카, 태국, 티베트 등에서 세운 절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성석가사란 이름으로 10년이 넘게 짓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개원한 오스트리아 절은 독일의 랑텐 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어진 절로서 많은 유럽불자들이 심시일만 보시하여 상징적으로 룸비니에 세워진 티베트 계통의 절이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총지종이 초대받아 축하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만 10년 전에도 룸비니와 인도의 불교성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 같이 가게 된 분들은 모두 우리 총지종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신심 깊은 불자들이라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일행들이 하나같이 교양과 매너가 있고 마음이 너그러워 짜증내는 일 하나 없이 한 식구처럼 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챙겨주는 바람에 열흘이 넘는 시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특히 김은숙 회장 보살님의 세

심한 배려와 분위기를 살려주는 센스로 인해 모두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12월 6일 출발 당일엔 겨울 날씨치고는 그다지 춥지 않았다. 총 인원은 22명, 예정대로 인천공항에 모여서 2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여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향했다. 일반적인 인도 순례 코스는 델리로 들어갔다가 룸비니까지 올라가서 다시 델리로 빠져나오는 것이지만 우리 일행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카트만두 구경까지 하게 된 것이다.

카트만두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11시가 조금 못되었지만 3시간 30분의 시차를 감안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니 창 너머로 눈 덮인 높은 산이 보이길래 혹시 히말라야는 아닌가 물었더니 히말라야를 보려면 6시간 정도 더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아침밥은 네팔 요리사가 한식으로 해줬다. 고반이라는 이름의 이 네팔 요리는 한국 식당에서 7년 동안 일했다는 데 우리 입맛을 아주 잘 맞춰 주었다. 특히 국이 내 입맛에 딱 맞았다.

카트만두에도 지방에서 몰려든 인구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티베트불교의 전

설에 따르면 카트만두는 과거철분의 첫 번째인 비바시불 시대부터 이 곳이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라는 수기가 있었으며 문수사리와 관세음보살이 이곳을 순례하고 지켜내었다는 전설이 있다. 사카무니 붓다께서도 이곳을 순례하고 교화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했던 보드나트 대탑도 티베트 종의 사리탑인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입구에서부터 각 지역에서 몰려든 참배객과 여러 가지 공물을 파는 장사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강한 향냄새며 시끄러운 호객 행위에 정신이 얼떨떨하다. 과연 카트만두의 최고의 불교유적지라 할 만하다.

이 탑은 높이가 약 40미터로 세계 최대의 사리탑이라고 자랑한다. 어떤 이들은 이 탑이 카사라

일경)의 13대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단과 첨탑 사이의 여러 가지 모양은 자?수?화?풍?공을 상징하는 오륜탑이다. 기단 아래에는 음마니반메움을 적어 놓은 마니차가 만들어져 있어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며 마니차를 돌리면서 진언을 외우거나 소원을 빈다.

스와어부나트의 나트는 사원이라는 의미이고 스와어부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로써 이 탑은 본초불을 모신 곳이다. 이 탑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카트만두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 사원은 5세기 경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네팔의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이 사원에 보드나트 사원과 마찬가지로 불교도는 물론이고 힌두교도들도 신성시하는 사원이라고 한다. 중심이 되는 탑은 역시 밀교의 만다라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 각 면에는 동방의 아축불부터 북방의 불공성취불까지의 사불과 그 권속들이 새겨져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중앙의 대탑을 중심으로 여덟 방향에 사불 사보살의 형태로 작은 탑을 배치했으며 아축불 곁에 비로자나불을 새긴 작은 탑을 특별히 하나 더 만들어 놓았다. 이곳의 탑, 즉 스투파는 대부분 티베트풍으로서 한결 같이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나 사불 사보살의 형태로 탑을 배치하고 각 탑상에는



▲ 룸비니 아소카 나무아래서

불신을 새겨 놓은 이러한 형태는 꽤 독특하다. 더구나 사원 경내의 네 귀퉁이에 자?수?화?풍을 상징하는 작은 탑이 세워져 있고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365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밀교적 상징성이 풍부한 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힌두교도나 일반 참배객들은 이런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기에 열심이다.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자세히 둘러보았겠지만 바산드푸르 광장을 보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광장으로 가는 길은 자동차와 리샤(자전거를 이용해 만든 인력거), 오토리샤(오토바이를 이용한 리샤), 자전거 등이 서로 얽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길을 놓칠까 봐 서로 손을 잡아서 피하고 이동했다. 달빛광장에는 옛 왕궁터와 탑 등이 보이고 소떼와 비둘기떼가 온통 뒤덮고 있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소풍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쿠마리 바합이란 곳으로 갔다. 이곳에는 네 팔 사람들이 살아있는 여신이라고 부르는 쿠마리 여신이 있다. 여신을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감추고 절 대 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야 여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참을 기다리니 화장을 특이하게 한 어린 소녀가 참박으로 잠깐 얼굴을 비추는데 그게 쿠마리라고 한다. 쿠마리 신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옛날에 네팔의 말라 왕조의 마지막 왕이 사춘기 이전의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소녀는 그것을 원인으로 죽었다고 한다. 죽은 소녀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 왕을 괴롭히자 왕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쿠마리신으로 모셔 경배하고 일년에 한 번씩 그녀의 상을 모시고 카트만두에서 행렬을 벌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녀의 원한이 풀리지 않아서인지 그 여신의 축제일에 말라 왕조는 사 왕조에 의해 마침내 망해 버렸다. 사 왕조는 그녀 덕분에 왕조가 탄생했다고 여기고 그때부터 그 여신을 섬겨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쿠마리 여신을 선정할 때



▲ 부처님의 탄생지임을 알려주는 표지석과 탄생상이 모셔진 마야테비 사원

는 나름대로의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혈통 좋고 인물 좋고 총명한 4.5세의 소녀를 골라 초경을 올 때까지 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쿠마리는 네와르 족과 사카족 가운데에서 고르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 중의 하나는 어두운 방에 가둬 놓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무서운 형상, 예를 들면 피가 흥건한 동물의 시체나 귀신 형상을 보여줘도 놀라거나 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혈통 좋고 인물 좋고 총명하다 담력까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이렇게 너무 완벽하면 팔자가 센 법. 쿠마리도 생리가 시작되고 나면 그 지위를 잃게 되는데 나라에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도 주며 결혼 시에는 많은 결혼지참금도 주지만 이 여자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결혼하면 6개월 이내에 죽게 된다는 미신이 있어 결혼을 꺼리기 때문에 간혹 청녀가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쿠마리도 더러 결혼한다고 한다.

점심을 먹은 후 룸비니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다. 기내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서녘의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나는 히말라야 산맥을 룸비니에 거의 내릴 때까지 감상했는데 이런 기회는 좀체 어렵다고 한다. 안개가 끼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정말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행운이었다. 모두들 한 쪽으로 몰려 히말라야산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질렀는데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나도 말로만 들던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산을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으려니 탄성이 절로 났다. 이것 하나만 본 것으로도 이번 여행은 제 값을 다 한 것 같았다.

룸비니에 내리니 날씨가 무척 좋다. 햇살이 눈부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도 꺼야 했다. 부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이곳에 이를 디디고 있는 자체가 경이롭다. 옛날 문헌에는 이곳이 숲이 우거지고 온갖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저 넓은 들판에 철말 울타리를 쳐놓았을 뿐이다. 차리리 울타리가 없는 것이 보기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의 길은 포장되지 않아 온통 먼지 투성이다. 과거에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부처님 성지를 돌아보기 위하여 오고 가다 목숨을 잃은 많은 구법자들이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과학기술의 덕으로 이렇게 단숨에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

지다. 마야테비 사원도 개축을 했으나 미적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 마야테비 사원 안에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를 표시했다는 돌이 놓여 있고 탄생 장면을 새긴 부조가 있다. 나는 옛날에 왔을 때 대리석에 새겨진 탄생 부조가 진짜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50년 전에 네팔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지금은 근처의 조그만 사원에 모셔져 있었다. 현재 마야테비 사원에 모셔진 오리지널 탄생상은 4세기 경에 만든 것으로 많이 마모되어 형태가 불분명하다. 사원의 옆에는 마야 부인이 목욕하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을 씻었다



▲ 쿠마리 여신

는 연못인 푸스카리니 섬지가 있다. 마야테비 사원 옆에는 아소카왕 석주가 있는데 1896년에 발견된 이 석주로 말미암아 이곳이 부처님의 탄생지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석주에는 이곳이 부처님의 탄생지이며 이곳의 주민에게는 세금을 8분의 1로 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내의 큰 나무 아래에서는 외국에서 온 참배객들이 모여 경을 읽고 있다. 고요히 명상에 잠겨있는 불자들도 보인다. 모두들 한 번쯤은 부처님의 탄생을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부처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불교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었고 우리들도 이렇게 부처님의 은덕을 입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탄생지가 신성임을 불자들에게 의하여 좀 더 장엄하게 가꾸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황혼의 룸비니 동산을 떠났다.



▲ 스와어부나트 사원에서

▲ 비행기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는 티베트 고승의 사리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붓다의 빠사리가 모셔져 있다고도 한다. 모든 유적지가 불분명하게 네팔과 인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것인지 언제 만들어 졌는지 정확한 장소는 맞는지인지 의심나는 것이 한몫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불교 유적지를 둘러보는 내내 느낀 점이다.

이 보드나트 대탑은 밀교의 소의경전인 《대일경》에 의거한 태장계만다라의 구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밀교적 사리탑이다. 즉 팔면체의 기단 위에 돛형으로 둥글게 탑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사각의 첨탑을 세운 다음 둥근 정상부를 만들어 올렸다. 기단과 정상 사이의 첨탑은 모두 1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

▲ 황혼의 룸비니

● 통리원장 신년 인터뷰

# “한국 불교계 정통밀교 종단으로 우뚝”



▲ 지성 통리원장이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1.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총지종이 창종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의의는 무엇입니까?

정통밀교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지 40년이면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종단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교화가 부진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많은 선배 스승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 불교계에 정통밀교종단으로 우뚝 섰으며 특히 재가불교 종단으로서 세계의 재가 불자들에게 한국의 불교를 알리는 등의 40살이 되는 종단에 걸 맞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 총지종이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까?

창종 초창기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창종 10여년에 30여 사원을 개설했습니다. 교세발전에 힘입어 승직자 수나 교도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치 못해 주춤하기도 했으나 본질이 장엄 만다라와 같이 불안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시대에 맞는 의식의 정비와 교화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교육을 통한 스승의 자질 향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발전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3. 올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도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불교 종단으로써 현대생활에 맞게 교화방편 및 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합창단이 함께 모여 공연을 비롯한 합창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교사상을 연구한 바탕으로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려 합니다. 격년제로 열리는 경로잔치에서 교도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잔치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지종을 더욱 알리고 대 중접

## 정통밀교 뿌리 내린지 40년 ‘성년’ 인재 양성과 상설교육기관 통해 성장 기대

을 두고 있습니다.

4. 향후, 종단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종조님의 비원이신 구국도생을 실천하기 위하여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교화 방편을 쓸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본산부지에 연차적으로 수행, 휴식, 레저,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원을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좀 발전된 형태-수행(서원당), 문화, 오락, 복지 등의 공간을 넓히고 싶습니다. 자성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원에 와서 머

물고 휴식할 수 있는 등 문화생활공간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사원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 종단이 크기 위해서는 인재도 중요합니다. 스승에 대한 교육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조직이 발전하려면 내적으로 실력을 쌓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자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도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종비로 공부한 스승 및 교무를 활용 교육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교육원의 상설 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을 할 것이며, 위탁 교육을 하더라도 차원 높은 수행을 통하여 교도를 지도하는 전문 수행 스승도 배출해 나갈 것입니다.

6. 종단협 소속 총지종이 한국 불교를 위한 활동과 대외적인 활동을 어떻게 전개 할 예정입니까?

30여개 종단이 외원 종단으로 있습니다만 일찍이 재단법인을 만들어 총지종이 오랜 역사를 가진 종단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은 종조님 이하 선배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40년의 다져진 기반을 딛고 인재 양성과 상설교육기관을 통한 내적 성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안으로 다져진 힘으로 교계와 각계 각 층에서 간담없는 활동으로 국내외에 한국의 정통밀교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7. 교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도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신명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사원 신축 시 교도를 위한 공간 확보에 염두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이 아닌 대자연속에 수련원 건립, 복지타운,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동체 등을 만들어서 총지종 교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기 40년을 축하드리며 총지종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기자>

총지종의보감

### 제왕절개수술 후 산후조리



조선화 원장 <여성 미 의원>

일반적으로 출산을 하고나면 3X7 일 21일동안은 1차산후조리기간으로 절대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 100일간은 2차 산후조리기간으로 보아 임신전의 건강한 상태로 산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리와 안정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 시기에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유산을 하거나 혹은 자연분만시도후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된 경우라면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자궁회복 및 건강회복정도가 더더욱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산후조리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임신과 분만은 여성의 자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생명탄생의 신비한 과정입니다. 물론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노력해 가야하지만 무엇보다 산후에 산모의 건강 회복정도는 앞으로의 자궁건강 및 전신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 시기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평생을 산후풍을 비롯한 다양한 자궁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풍은 여성이 출산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을 때 풍한이라 불리는 외부의 찬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온몸이 수시고, 결리고, 뼈마디가 아프고, 관절이 시리고, 과도한 땀의 배출과 더불어 심하면 우울증을 동반하는 증상, 즉 산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통털어 말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인공유산, 부인과적인 수술(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도 잘못된 산후관리로 인해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인과 질환입니다.

이에 분만이후에는 산후조리과정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통 출산 후 100일 동안이 산후조리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출산직후 여성의 몸은 자궁과 골반을 포함해 전신의 기운과 혈액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공급과 휴식을 얻고 임신전의 몸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 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인데 예로부터 3X7일이라고 하여 출산 후 21일 동안은 절대안정을 통하여 산모와 태아의 회복에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산모라고 하여 무작정 더운 방 안에서 과도한 양의 땀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24-26도의 적절한 온도와 40-60%정도의 습도가 알맞습니다. 더불어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찬기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겹의 옷을 입어 체온을 조절하고 과도한 땀으로 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후부터는 미지근한 물로 가벼운 샤워나 머리감기가 가능합니다. 너무 무더운 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사용도 가능한데 바람이 신체부위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신체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적당한 두께의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상처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하루에 1-2회씩 좌욕을 자주하고 소독과 위생에 신경을 씁니다.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우선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것이 좋고 약해진 위장기능을 위해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분만 후 2주 동안은 무기질과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국을 섭취하여 자궁내 어혈을 배출하고 혈액생성을 활발히 하면 좋습니다. 2주후에는 곰국, 쇠고기, 계란, 아재순으로 적당한 섭취해 수유와 체력회복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출산후 본격적으로 육아에 전념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는데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임신, 출산과정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첫출발이라 생각하고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위해서 올바른 산후조리가 엄마의 평생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성 스스로가 명심해야 합니다.



창기 40년

##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관성사

주교: 정사인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 밀인사

주교: 정사원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 법천사

주교: 정사시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 벽룡사

주교: 정사법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 총지사

주교: 전수 선도원  
정사 화령  
정사 법경  
정사 록경  
전수 법수연  
전수 덕현  
☎ (02)552-1080

### 실지사

주교: 전수 연등원  
☎ (02)983-1492

### 정심사

주교: 전수 진일심  
☎ (02)433-0374

### 지인사

주교: 정사지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 시법사

주교: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서울 · 경인교구 일동

# 謹賀新年 신묘, 새해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원  
중앙총교회 의장

한해가 가고 또 다른 한해의 시작입니다. 올해에도 좋은일이 많이 하고 좋은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도 예년이나 다름없이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슬기로운 한해였습니다.

(飢餓) - 반 백년 동족 분단이 가져온 통한(痛恨)의 아픈일들, 이전투구(泥田鬪狗: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횡령, 사기등등의 일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료하는 최상의 방법이겠지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오늘이다 내일이다, 올해다 내년이다 구분 지움은 더 나은 앞날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

## 순리(順理)대로 삼시다

몸을 던져 이웃을 구한 이가 있는가 하면 도움을 주어야 할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한 이기심 가득한 파렴치한 인간들이 저지른 가슴아픈 사건들도 많았지요. 세계 곳곳의 대재앙, 분쟁, 기아

하나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맞닥뜨려야 할 삶 그 자체라면 받아들이 이겨내고 자신을 정화시켜 극단에 치우친 이기탐욕심을 멀리하고 진정한 인간성 회복이 얼룩진 세상을 치

도 역사는 이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부리며 가식(假飾)하고 교활(狡獪)한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 순리(順理)대로 삼시다. 모두가 활짝 웃을수 있는 신묘년을 기대해 봅시다.



지공  
대구 경북 교구장

걸림 없는 자유는 무엇인가?  
집착이 원인일 것이다. 물질 명예 자식 등에 집착하므로 편안함을 가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 가지 말고  
미운사람도 갖지 말라

## 걸림 없는 마음

서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몸은 꿈과 같고 허깨비 같고 불거품 같고 풀꽃의 이슬과 같으니 참으로 허망하다.

또 한 물건이 사람마다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버티며 해와 달 보다 밝으며 이러한 물건이 우리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걸림 없는 행복을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고 미운사람 만나서 괴롭다 <법구경>

인간관계를 부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집착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도 집착 말고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결과일 것이다.

걸림 없는 자유는 어디에도 집착 말고 순간순간 충실히 살며 열심히 몸뎠정진 하여 참 나를 찾아 볼 것이다. 성도합니다.

## 回光反照(회광반조 · 자신을 돌아 봅시다)

신묘년 토끼의 해는 지혜(智慧)와 평온(平穩)의 해라 하지요. 금년에는 인계위사(因戒爲師 :계행을 스승으로 삼고) 하고, 자심청정(自心淸淨)하여, 생자필멸(生者必滅), 불생불멸(不生不滅)의 근본(根本) 자리를 찾아 갑시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천경만론(千經萬論 : 천가지 글이나 만가지 말)은 지식(知識)은 필자연정 지혜(智慧)에 이르지 못하고, 도불원인(道不遠人 : 도는 사람을 떠나 먼 곳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광  
부산 경남 교구장

즉, 나(我)는 이 몸을 나 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몸의 업을 이루고, 이 말이 나 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입의 업을 이루고, 이 뜻이 나 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뜻의 업을 이룬다. 나도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있는데, 지나 잘 하지... 나서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불평 불만은 하지말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 하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 하다오. 상대(相對)를 이기려고 하지말 마소.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 하는 미덕이 토끼 같이 지혜(智慧)롭고 평온(平穩) 하게 살아 가는 비결(秘訣)입니다. 새해에도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편안 하시기를 서원 합니다. 성도 합시다.

## “복을 지어 큰 공덕 얻는 한해가 되시길”

신묘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년에도 총지종 모든 교도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복덕이 증장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복을 짓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복받을 일구는 것은 자신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돋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전(福田)이라 합니다.



범우  
충청 전라 교구장

금년에는 총지종 모든 교도 분들이 삼복전(三福田)을 짓는 진언행자가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삼복전은 경전(敬田)·은전(恩田)·비전(悲田)을 말합니다. 경전(敬田)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공양·예배·찬탄·참회·발원하면 그것이 복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은전(恩田)은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길러주셨습니다. 자식은 그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자식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

모님을 공경하고 은혜 갚는 일이 복과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비전(悲田)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비전(悲田)입니다. 이와 같이 삼복전을 짓고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없어지고 복덕과 행복이 번창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총지종 모든 교도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처님전에 서원 올립니다. 성도합시다!

## 자신을 바로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벌써 한해가 지나가 세월이 무척 빠르게 느껴집니다. 세월에 맞추듯 세상은 쉽 없이 변화하고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뒤처지기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듯 합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가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자신과 주변을 둘러 보십시오. 나는 어느 곳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니 까 중심 없이 행동하지 않는지요. 여기저기에 흩날려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따지는 않는지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고 했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남들보다도 떨어진다 고 해도 부처님은



시정  
서울 경인 교구장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어리석음, 안이함, 부정적 생각 등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 원래 있었던 양보, 배려, 긍정적인 마음, 사랑과 자비 등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반기고 사회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그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새해에는 자신, 가족과 내가 속한 사회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웃음과 행복이 옵니다. '옴나니반메홀'.



총기 40년

#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만 보 사

주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 백 월 사

주교 : 정사 범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 법 황 사

주교 : 전수 혜안정  
☎ (062)676-0744

## 혜 정 사

주교 : 정 사 서 령  
전 수 혜원정  
☎ (043)256-3813

## 흥 국 사

주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충청 · 전라교구 일동

세상사는 이야기

### 춘천행 무궁화 열차는 역사속으로

춘천행 무궁화 열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우리들의 꿈과 추억을 간직한 채 조용히 사라져 갔다. 춘천행 열차는 이제 편리하고 빠른 전철에 그의 자리를 내어 주고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간직한 채 영영 떠나가 버렸다.

경춘선은 1939년 개통되어 7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싣고 힘차게 달렸다. 때로는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기뻐해 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가득 싣고 2010년 12월 20일 멈출 때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춘천행 열차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의 반항도 지켜 보았고 우리나라의 해방된 벅찬 모습도 보았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파괴 시키고 많은 사상자를 냈던 6. 25 전쟁도 말없이 지켜 보았다. 열차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묵묵히 지켜 본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제 그의 일을 잘 마무리 하고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넓은 가슴으로 안고 말없이 그대로 멈춰 섰다.

내게도 갖가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

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지금도 난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느 늦은 봄날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에 몸을 싣고 오는데 갑자기 안개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차창으로 보이는 바깥 경치는 점점 제 색깔을 잃어 가고 있었다. 마치 수목화를 보는 듯했다. 아주 잘 그린 수목화다. 난 점점 수목화의 뒤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을 훑힐 날 듯이 가볍게 날아 올랐다. 마치 옛 선비들이 시를 읊으며 노닐 것 같은 정자도 보이고 신선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멋진 골짜기도 보인다.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날 흔든다. "애,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아니야, 바깥 경치를 보고 있었어." 난 혼자 얼굴을 찡그리고 살짝 웃었다.

여성 선구자의 한 분인 윤희순의 발자취를 찾아 가기 위해 춘천에 갔을 때 일도 생각 난다. 춘천 역에 내리니 할머니들이 옥수수 삶은 것을 팔고 있었다. 강원도 하면 옥수수가 유명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우리는 주저 할 것도 없이 옥수

### 아쉬움을 남겼지만 젊은날의 낭만과 추억을 간직

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가벼웠다. 다시 한번 그때의 추억을 더듬으며 여행하려 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가 보지 못하고 그냥 보냈다.

먼번 옛날 풋풋한 대학생이었을 때 처음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갔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미팅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당일치기 여행이어서 많은 추억은 없었지만 기차를 타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기억의 저편에도 남아 있지 않지만 내 모습은 생각이 난다. 기타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단체 게임도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맛있히고 어린 아이들 같이 놀았지만 한껏 맛을 내고 모두 참석 했던 것 같다.

난 그때는 왜 그리 새침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갔다.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늘 달랐다. 한번은 열차 안에서 각자 가져온

간식을 꺼내어 나누어 먹으려는데 친구가 커다란 보온병을 꺼내고 있다. 보온병에는 군고구마가 있었다. 방금 구운 고구마 같이 따끈따끈 했다. 친구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우리들에게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고구마를 굽고 무거운 보온병에 넣어서 가져 왔다고 한다. 그때 받은 감동

수를 사서 길에 가면서 먹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없었던 것 같다. 윤희순이 살던 집과 우물 터와 여성의병장으로 훈련하던 곳 등을 찾아 다녔다.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 사진도 찍고 잘 아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그분의 이야기도 녹음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정말 보람된 여행이었다.

일을 마치고 윤희순 기념 사업 회에 계시는 분의 배려로 춘천에서 유명한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었다. 본고장에서의 맛은 역시 다르다.

잠시 옛 추억에 잠겨 보았다.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며칠 전 어느 날 우리 몇 사람은 옛 추억을 찾아 춘천행 무궁화 호를 타기로 했다.

약속한 날 영하 15도를 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훨씬 넘는다고 했다.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이었다. 모두들 겁을 내어 가지 말자고 해서 나의 계획은 무산 됐다.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우리들은 좋은 날을 정해서 전철이라도 타고 가서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 박묘정 -

### 불교설화 <51>

## 토끼의 소신공양

- 계를 굳게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좋은 과보 -

부처님이 제타바니에 계실 때, 한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네를 초청해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맛을 골고루 갖춘 공양을 7일 이나 올렸다. 공양뿐만 아니라 500명 비구스님네의 생활용품도 보시하였다. 공양을 받은 마지막 날, 부처님은 그 장자의 공양공덕을 찬탄하고 비구들의 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전생담을 설하였다.

《석가보살이 한때 삼림 속의 토끼로 태어났다. 그 토끼는 수달·들개·원숭이 등과 같이 살았다. 토끼는 그 친구들에게 계율과 포살(布施)과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뜻은 재(財)를 울리는 것, 계(戒)를 설하는 것 등이다. 같은 지역 내의 수행자들이 보름날과 그믐날에 모여서 지난 반달 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이다. 어느 날, 토끼는 하늘을 바라보고 보름이 다가온 것을 알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포살하는 날이다. 너희들 세 마리도 계를 받고 포살회에 참가하자. 계를 굳게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좋은 과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심하는 비구스님이 찾아오면 그대들의 음식을 꺼내어 공양 올리도록 하여라.”

그 세 마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다음날 새벽, 수달은 먹이를 찾아 강가로 갔다. 어부가 모래 속에 숨겨 둔 물고기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이것의 주인이 있습니까?” 하고 세 번을 소리쳤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수달은 물고기를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식사시간에 먹기 위해서 숲 속에 감추어 두고 자신의 행위가 계에 어긋났는지를 반성한 다음 잡이 들었다.

들개도 먹이를 찾아서 농가의 마물로 내려갔다. 농부의 오두막에서 고깃덩어리와 우유를 찾아냈다. “이것의 주인이 있습니까?” 하고 세 번 외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들개는 먹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왔다. 식사시간에

왔다. 식사시간에 먹기 위해서 망고를 숲 속에 감추어 둔 후 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잠이 들었다.

한편 석가보살의 화신인 토끼는 식사 때가되면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다짐했다.

집승들의 보시정신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변장한 탁발승은 먼저 수달에게 가서 먹을 것을 부탁했다. 수달은 자신의 식사로 감추어 둔 물고기를 선뜻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권했다. 자재천신인 탁발승은 다시 들개에게 가서 공양할 음식을 부탁했다. 들개도 선뜻 자신의 식사로 준비해 둔 고기와 우유를 내놓으려고 했다. 탁발승으로 변장한 자재천신은 토끼에게로 갔다. 토끼는 탁발승의 방문을 받고 기뻐했다.

“스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내놓은 일이 없던 음식을 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이니 불이 지펴진 후에 제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충분히 구워지면 고기를 드시고 출가인의 도를 실천해 주십시오.”

탁발승으로 변장한 자재천신은 그 말을 듣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 불을 만들었다. 그러자 석가보살인 토끼는 불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불은 자재천신이 토끼의 보살정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토끼의 털끝 하나도 태우지 않았다. 자재천신은 토끼의 희생적인 보시정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달 속에다가 토끼의 그림을 넣었다. 수달·들개·원숭이·토끼는 서로 의중계 지내다가 각자의 업에 따라 전생(轉生)하였다.》

이 법문을 듣고 7일 동안 스님에게 공양 올린 장자는 크게 기뻐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은 “그때의 수달은 지금의 아난이요, 들개는 지금의 목련이요, 원숭이는 지금의 사리불이며 토끼는 지금의 나다.”라고 말했다. (본생경)

-심일화 -



토끼(卵)

옛이야기나 동요, 민화, 동시 등에서 토끼는 조그마하고 귀여운 생김새, 놀란 듯한 표정에서 약하고 선한 동물,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에서 영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

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理想世界)를 꿈꾸어 왔다.

토끼는 장수의 상징(an emblem of longevity)이며, 토끼는 달의 정령(the vital essence of the MOON)이다.

토끼는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까지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행로

로 다니는 외길 인생이다.

그러서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다른 동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명석한 두뇌로 수학적인 통행로를 생각하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자기의 안식처와 연결해 놓을 줄 아는 치밀하고 명석한 동물 중의 하나이다.



총기 40년

##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화사

주교: 정사덕 광  
전수보현  
☎ (054)761-2466

### 개천사

주교: 정사우 인  
전수보명심  
☎ (053)425-7910

### 국광사

주교: 정사안 성  
전수유가해  
☎ (054)772-8776

### 단음사

주교: 전수지현  
☎ (054)333-0526

### 선립사

기로스승보원  
주교: 전수심지장  
☎ (054)261-0310

### 수계사

주교: 전수안주화  
☎ (054)745-5207

### 수인사

주교: 정사지공  
전수지회심  
☎ (054)247-7613

### 승천사

주교: 기로스승원봉  
기로스승지선행  
☎ (054)746-7434

### 제석사

주교: 전수행원심  
☎ (053)743-9812

진언공덕

가득하시길!

대구·경북교구 일동

날마다 좋은날

외도 여행기

여름내 농사 짓느라 바빴던 보살님들과 모처럼 나들이를 갔습니다. 각각의 사정으로 사원의 모든 보살님들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쉽기는 했지만 오신 분들은 저마다 가볍고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날씨는 마치 봄날처럼 따뜻해서 모처럼의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설현장인 바다속으로 뚫린 터널을 보려는 사람들의 기대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뜨겁습니다.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거가대교 휴게소 진입이 어려울 만치 꽉 막힌 도로인 했지만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체증들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다속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무런 실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널은 바다속에 뚫려 조용히 길을 내고 있었습니

다. 말로만 들던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력을 실감하고 보니 괜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저 터널을 지나고 바다위를 잠시 더 달린 후 거제도에 닿았습니다.



▲ 여행을 같이한 단음사 교도

이전에는 그렇게 멀리만 여겨졌던 부산과 거제도의 사이가 불과 30여분도 걸리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고는 어찌 상상이나 했을런지.....

거제도 장승포항에서 점심을 먹은 후 해상공원으로 유명한 해금강과 외도 유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장의 유창한 안내와 더불어 출항한 배는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일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좋은 해상 낚시터라며 정말 운이 좋은 날이라고들 했습니다.

순한 바닷바람 덕분에 바다에 우뚝 선 바위섬들과 해금강 유람을 무사히 마치고 외도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한국의 하와이라 일컬어지듯 이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외도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부부가 맨손으로 시작하여 직접 일구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외도의 볼거리중의 하나인 800여종이나 된다는 많은 꽃들은 계절 탓에 볼 수 없었지만 아자수나 선인장등

지 현 (단음사)

열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푸른 색감도 바다와 어우러져 무척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걷는 곳인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도 연세 많으신 보살님들도 쩡그린 표정 하나 없이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역시 평소 마음 뛰으시는 분들이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장승포항에 돌아오니 벌써 날은 어두워지고 돌아오는 길도 꽤나 막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자연과 더불어 오래 사신 덕에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풍류를 즐기실 줄 아는 보살님들은 어느새 음악에 몸을 싣고 마음을 맡기시느라 지루한 줄도 모르셨습니다.

늦은 시각 도착했지만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없이 즐거운 하루를 감사했습니다.

포도농사터에 겨울이 되어서야 잠시 누릴 수 있는 이 여유와 편안함을 함께 한 우리 단음사 보살님들~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농사 더 잘 지으시고 좋은 여행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꼭 서원합니데이~^^

우리들 이야기

등 불

보일 듯 보일 듯  
가물거릴 듯 가물 하게  
꺼질 듯이 살랑인다,  
오는가 멀어졌는가,  
보일런가 잠힐런가  
안개 낀 마음  
밝혀나 줄듯이  
잡아도 잡아도  
멀리 있는 아련한 신비의 등불  
앞에만 비치는 고요의 그림자  
아득히 멀리서 비치는  
까야만 우리 속의 등불  
멀리서 멀리서  
가만 가아만  
살랑인다.

권영배(단음사 각자, 시인)

생활상식

카펫의 찌든 냄새 제거

카펫의 찌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밤에 잠들기 전에 카펫에 탄산수소나트륨 가루를 골고루 뿌리고, 다음 날 아침 청소기를 돌리면 카펫에 찌든 음식물과 애완 동물 등의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다. 탄산수소나트륨이 냄새를 흡착하기 때문이다. 2 주에 1 회 정도 실시한다.

청소기 노즐과 스타킹의 만남

조그맣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청소기를 사용하려면 노즐 속으로 물건들이 빨려 들어가 청소기로 막히고 불편하다. 그 때는 낡은 스타킹을 청소기의 노즐에 씌우고 고무줄로 묶은 뒤 청소기를 돌리면 스타킹의 미세한 그물코 덕분에 연필끝이나 서랍 속의 물건들을 보호하면서 묶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수도꼭지는 스타킹으로 청소

세면대의 배수구를 청소할 때는 버리는 화장지의 심을 사용하면 크기가 알맞아 좋다. 화장지 심의 한쪽에서 1/3 정도의 깊이까지 비스듬히 서너군데 칼집을 넣은 뒤 배수구에 넣고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면 배수구의 찌든 때가 깨끗하게 제거된다.

천연왁스인 썬드물로 바닥을 청소

오래 전에 피부 미용에 쓸겨를 이용해 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썬드에 함유된 유 성분에는 광택을 내주는 왁스 효과가 있다. 썬드물로 바닥을 닦으면 금새 바닥은 윤이 난다. 거울과 유리에도 효과적이다.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불교상식

대장계만다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팔엽이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여덟 꽃잎으로 상징하는 육단심을 상징한다. 이것은 5불과 4보살로 표시된다. 이것은 인위(因位) 곧 범부위의 심식인 9식(九識)을 가리킨다. 중앙에는 대일여래가 있으며, 그 주위에는 보달불, 개부화왕불, 무량

수불, 천고뢰음불 등 대일여래의 별역을 나타내는 네부처가 있다. 그리고 그 옆의 네보살은 부처님의 과(果)에 대한 인행(因行)을 나타낸다. 보리의 보현보살, 지혜의 문수보살, 자비의 관음보살, 열반의 미륵보살이다.

이달의 추천도서

스님의 주례사 :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남녀 마음 이야기

법륜 저/김점선 그림 | 휴(休)



이 책은 '스님의 주례사'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며 결혼 전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글로 화제가 된 법륜 스님의 남녀 마음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주제를 통해 세상에 공감이란 티끌만큼도 없다는 인과(因果)의 법칙과,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모든 인연 맺음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마음발을 잘 다

스려 자신만의 생을 피워 내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선방일기



지허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선방일기』는 1973년 《신동아》에 처음 연재되었던 글로 저자가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난 이야기이다.

결핵에 신음하던 스님이 바람을 쐬기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복을 그 스님의 바람에 쐬겨주며 가슴 아파하는 수행자의 모습, 수행에서 낙오해 뒷방에서 부표처럼 떠도는 수행자의 모습, 모든 욕구를 떠난 곳으로 가고

자 하는 수행자들이 식욕을 견디지 못해 바동대는 모습 등 선방의 이면사까지 잔잔히 풀어내 읽는 맛과 함께 감동을 전해준다.

답일소

문운정 지음 / 한결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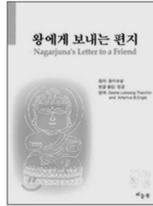


『답일소 一笑』는 왕궁에서 대중 속으로, 소 유에서 무소유로, 화려함에서 소박함으로, 오욕락에서 고행으로, 자기 중심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신을 완성시킨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선승(禪僧)들을 일일이 만나 묻고 답한 인터뷰집이다.

그동안 불교 관련 에세이집, 선사들의 일화집 등을 출간해 온 저자 문운정은 선가의 가풍이 워낙 자신의 살림살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에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허락을 얻어내

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 지음 / 정공 옮김 / 하늘 북



『왕에게 보내는 편지』는 인도 불교의 대승인 용수보살이 친구인 남인도 지역의 왕이었던 고타미푸트라에게 보내는 편지글 모음이다.

이 편지에서 그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왕이 그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왕에게 모든 불교 전통에서 공통적인 삼학, 즉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편으로서 열 가지 선업을 닦도록 가르치고 있다.



총기 40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Table listing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onggi 40th Anniversary. Departments include 정각사, 덕화사, 관음사, 단향사, 밀행사, 법성사, 삼밀사, 성화사, 실보사, 운천사, 일상사, 자석사, 화음사. Each entry includes a department name, a contact person, and a phone number.

부산 · 경남교구 일동

# 민족문화유산 무시하는 정부·여당 비판 지경부, 개신교만 방송장비 실태조사 불교 관련조사 일정·계획 불충분

## 종단협, 26개 소속 종단 성명서 채택



▲ 종단협은 이사회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 수준으로 퇴보시켰다"며 "더욱이 그간 수없이 자행돼 온 보수 극단적 개신교도들의 민족문화유산 훼손과 해탈 그리고 불교비방은 장로 대통령 정부에서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단협은 또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의 편법적인 개신교 지원 중단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종단협은 "정부·여당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그 책임을 다하라"며 "특히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편법적 개신교 지원사업과 예산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성토했다.

종단협은 "2006년 환국된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정부가 반환을 약속한 '조선왕실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올해 7억2천100만원보다 1천500만원이 증가한 7억3천620만원으로 확정했다. 신년하례법회는 1월 5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는 12월 21일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계속적인 불교편파와 무시에 분노와 함께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26개 소속 종단이 한 목소리로 '민족문화 위기와 종교편향'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종단협의 성명서에서 "그간 수없이 자행돼 온 보수 극단적 개

신교도들의 민족문화유산 훼손과 해탈, 불교비방은 이제 장로 대통령 정부에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1700년 우리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단순히 특정종교로만 치부하는 반민족적, 반문화적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선조들이 물려준 찬란한 불교문화유산의 보호·보존의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불교계에

하루 빨리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종단협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래 남북관계 를 최고조로 악화시키고, 소통과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새 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을 후진

# 종교화합 기리는 성탄트리 불 밝혀 조계사에 설치, 축하메시지 발표



▲ 조계사 일주문 앞에 불을 밝힌 성탄트리.

서울 조계사에 아기 예수 탄생은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깨을 축하하고 종교평화를 기원하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심화되는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이웃을 함께 보듬어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 삼각꼴 모양의 전통한 지등으로 만든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종교평화를 기원하며 불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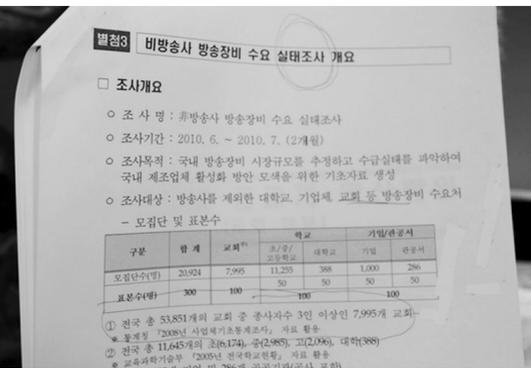
자승스님은 "인류의 고통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일을 맞아 불교도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종교인의 지

해와 사랑으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훈훈하고 평화로운 성탄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간절히 기원했다.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사 마당에 성탄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면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에 개신교계 전체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설치된 트리는 내년 1월2일 까지 불을 밝힌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2월 20일 김총무와 환담자리에서 최근 잇따르는 개신교의 불교편파가 생각이상으로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비방송사 방송장비 실태조사 개요 자료.

지식경제부가 국산방송장비를 확산하기 위해 종교계 시장규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경부는 12월 22일 오전 7시 30분 부터 약 두시간에 걸쳐 서울 팔레스트렐에서 방송장비 종교계 확산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정병찬 지식경제부 사무관, 이준호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용신 순복음교회 기술팀장, 서현철 기독교복음방송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장비 업계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경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

지 2개월간 방송사를 제외한 비방송사 방송장비 수요실태조사를 내렸다.

이 조사는 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장비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내 방송장비 보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기독교 TV(CTS)로부터 20개의 대형교회

를 선정 받아 교회 방송장비 실태와 교회의 장비 구매계획에 대해 파악했다.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장비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한 대상에 불교나 가톨릭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 '방송장비 종교계 확산방안'이라고 명시된 간담회 자리에도 개신교계 방송단체에서만 참석했다.

지경부는 이날 불교계 방송장비 실태조사 계획안을 자료로 첨부했지만 정확한 일정이나 계획이 불충분해 개신교만을 우선 조사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자료에는 2011년 1월부터 BTN과 동국대의 추천을 받아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2011년 4월에 조사내용 결과 발표를 계획으로 잡고 있지만, 해당기관과의 접촉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하고 "세금을 들여 소망교회 등 방송장비 교체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산방송장비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종교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경부는 "개신교 측과 간담을 가진 것은 이 부분의 방송장비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불교계와 천주교 등 종교계와 대학·공공기관 등 방송장비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들 불교를 두 번째로 신뢰 불자(佛子)중 불교신뢰 69.9%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교보다 개신교회, 불교 순이었으나 올해는 가톨릭교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들은 불교 다음으로 가톨릭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윤실이 11월 8일부터 열흘간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실시했다.

응답자 중 41.4%가 가톨릭교회를 신뢰한다고 밝혔고, 불교는 33.5%, 개신교회는 20.0%로 나타났다. 2009년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종교기관인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불교 순이었으나 올해는 가톨릭교회, 불교, 개신교회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7.6%, 불신한다는 응답은 48.4%로 조사됐다. 특히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중에서도 16.8%의 비율을 보였다. 비개신교인의 신뢰도는 8.2% 수준에 그쳤다.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응답은 불교 신자와 무종교인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자와 무종교인들은 각각 34.6%와 32.8%가 2~3년 전보다 개신교회를 더 낮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민단체, 언론, 정부, 사

법부, 개신교회, 국회 중 종교별로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 대해 불자들은 시민단체(61.8%)를 가장 신뢰했고 가톨릭교인 역시 시민단체(65.3%)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불교, 가톨릭, 기독교 중에서 불자(12.5%)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톨릭과 기독교인들의 정부 신뢰도는 7%미만에 그쳤다. 종교별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은 불자들은 69.9%가 불교라고 응답했고, 기독교인들은 77%가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밝혔다. 가톨릭교인들은 100% 가톨릭교회라고 응답했다.

불자 중 25.7%는 가톨릭교회를, 0.7%는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았으며 60대 미만에서는 가톨릭교가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다.



총기 40년

#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울경인교구

지회장 김은숙  
총무 이인성, 이연수

##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신인록  
총무 정남선

## 대구경북교구

지회장 김수자  
총무 이양숙

## 충청전라교구

지회장 민순분  
총무 이민자

각 사원 신정희 회장과 임원 일동

# 불교 총지종 신정희 일동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사랑에 감사

## 후원금은 아동센터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



▲ 센터 학생들이 동래구 노인복지관 할아버지와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다고 확신합니다.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는 저희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문화체험 사업비, 캠프 사업비, 학습지도 사업비, 아동 보호 프로그램비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곳곳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과 따뜻한 소통을 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자님들의 후원금품들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소식 및 지역아동센터 소식은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분기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서원합니다.

2010년 바라밀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입니다.

### 〈현 물〉

정각사 - 김정남, 김화자, 대원님, 신인록, 신정화, 원경연, 이금순, 이순옥, 정남선, 정인순

운천사 - 박금자  
화음사 - 강은정, 김순이, 수현님, 이미영, 정윤희  
해피빈,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 〈현 물〉

동래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보급자리지역아동센터, 부산지회, 불교총지중 관상사, 아이들과 미래, 우리금융, 자비회, 화목지역아동센터



▲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한 후 단체사진을 찍은 센터 학생들.

## 바라밀 아동센터 소개

바라밀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소속으로 2005년 6월 1일에 개원하여 불교총지중 정각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의 넓은 강의실과 강당, 주방, 식당,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을 벗삼아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 되고 있어 이용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라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역할

-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
- 아동이 가정의 빈곤,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발달권, 학습권등 보장.
-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성형성 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등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연결 등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혼후원 등

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등

※ 이용대상 : 초등 1학년 ~ 중학교1학년 (정원 29명)

※ 이용시간 : 초등 - 학기 중 오후 2시 ~ 6시 (저녁제공)

중등 - 학기 중 오후 5시 ~ 8시 (저녁제공), 방학 중 오전 10시 ~ 5시 (점심제공)

※ 이용방법 : 방문 - 입소상담 - 입소심사 - 통보 - 이용

부산 정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담당자(김수경 교무)가 지난 1년 동안 후원해 준 후원자에게 고마움의 편지를 전해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랑하는 바라밀지역아동센터 후원자님께

평소 저희 바라밀지역아동센터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인사드립니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을 나누는 것"이라는 말처럼 후원자님의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있

## 남영옥 선생님 국제포교사자격증 취득



동해중 남영옥 선생님

중립 학교 동해중학교 영어과 교사인 남영옥 선생님이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남영옥 선생님은 정각사 교도이며 학교에서 불교반을 맡아 지도하는 등 평소 불심이 돈독하고 불교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그동안 흥법사에서 1년간 불교교리, 불교사, 불교문화, 한국 불교일반, 포교이해론, 외국어(영어) 등을 공부하여 2010년 국제포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였다. 현재, 흥법사에서 국제포교사로서 영어 원어민교사에게 한국문화체험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지중단을 위해서 포교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나의 조력자, 친구



동해중 2학년 5반 이석호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던 중 어느 책 뒷면의 질문이나의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잠시 망설이고는 "글쎄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큰 꿈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답이 고작 "글쎄요."라니. 그러고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읽어 그 답변에 "그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나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행운의 절반, 친구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계발서인데 하고자 하는 말을 일상의 이야기에 녹여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즐거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주인공 조는 광고회사의 팀장입니다. 그는

어린시절에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늘 놀림만 받았습니 다. 그러다 보니 조는 어른이 되어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조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기는 물론이고

팀원들은 그의 뒷담을 하기 일췌였습니다. 어느 날 조는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 역사상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따내어 만족할 만한 성과금이 그의 주머니를 채워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을 같이 나눌 사람없이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조는 '맥스 플레이스'라는 커피숍에 가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숍 주인인 맥은 손수건을 건네고 상냥하게 공짜 커피와 쿠폰을 건넵니다.

이유모를 친절에 조는 맥이 다른 속셈을 품고 자신에게 접근한다고 여겼 습니다. 이 정도로 조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래도 친절을 거절할 수 없기에 조는 맥스플레이스에 종종 커피를 마시러 가고, 조금씩 맥과 친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는 얼떨결에 맥에게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조 주위에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맥은 때때로 커피와 사람을 빚대어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맥의 가르침 덕에 조는 조금씩 변합니다. 동료 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조의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 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조가 불 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그러나 조는 예전부터 '커피숍 운영'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맥스플 레이스를 인수받아 많은 친구를 사귀 고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행이 오히려 행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조는 진정한 부, 마음 의 풍요를 위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의 조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 으면서 반성하는 심정으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친구는 결국 나의 경쟁 상대이기도 그를 이겨야 하고 남 이 성공 하는 건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말이지요. 물론 가끔씩 미워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켜 주는 사람이 친구이지 않을까요? 맥은 용서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할 때나 용서 받을 때,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친 근육 이 회복되면서 더욱 튼튼해 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친구와의 우정을 깊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맥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요. 반성할 일이 또 생깁니다. 나

는 친구가 외주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았는지, 혹은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맥은 21세기의 많은 조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친구를 찾아내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 이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지식과 전문성만큼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남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을 배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발견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함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저는 서회 같은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책과 독후감을 나의 인생 사명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면 내 인생의 컨설턴트, 맥을 만나는 것과 다름없겠지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럼요,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요.

(교내특서발표회 우수작)



#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 강	이사 김무남	교장 장재계
	이사 법 공	이사 정영문	교감직무대리 김진화
	이사 대 원	감사 수 현	행정실장 석동훈
	이사 선도원	감사 범 우	
	이사 인 선	감사 박정선	
	이사 강경중		

교직원 및 행정직원 일동

## 충지중 중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풍경소리

거리의 현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인이 잘 생긴 감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담긴 감자를 보며 행인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전부 사면 값을 좀 깎아주실래요?" "저는 한꺼번에 다 팔지는 않습니다. 일찍 손을 털면 좋을 것 같지만 내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가득한 이 지상을 사랑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저 떡갈나무 잎사귀를 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물건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나에게는 삶의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햇빛을 막지 않으려고 비켜서는 내게 그분은 거리의 현자처럼 거룩해 보였습니다.

맹년자 (수필가)

지혜

큰 바위 덩이도 높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눈앞에 닥친 큰 문제라 할지라도 넓게 멀리 볼수록 작아지는 법입니다.

라도현



하루를 살듯이

일을 시작함에 평생동안 할 일이라 생각하면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는 것도 하루만 하려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오늘 하루 만이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백년도 하루의 쌓임 이요, 천년도 오늘의 다음날이니 하루를 살 듯 천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법현 스님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38p-4

이달의 명상 쉬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저 개울이 흘러 흘러 마침내 바다로 가듯이

법규경

친구들이야! 총지 청소년 겨울 스키 캠프 가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신나고 재미있는 스키캠프에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요. 불교 총지중은 청소년 겨울 스키 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장 소 : 현대성우리조트 (강원도 횡성군 둔내 : 033-340-3000)
- ▶일 시 : 2011년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 ▶대 상 : 총지중 교도자녀 (초·중·고)
- ▶문의사항 : 각 사원 주교스승

특별기획 / 총지종 40년사

# 한국밀교의 새로운 장을 열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 1. 총지종의 창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원정 대성사께서 이루신 밀교종단의 창종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땅 한반도에 5백년 동안 잠들었던 밀교를 다시금 중흥시켰다는 점이며, 둘째, 정확한 삼밀의계를 갖춘 밀교수법을 정립했다는 점이고, 셋째, 종단의 재단법인화를 들 수 있다. 종단 운영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한국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넷째, 출가종단이 아닌 재가종단으로서 승속동수(僧俗同修)의 수행 풍토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삼밀수행으로 자기 스스로 염승정진에 들어가는 수행체계를 갖추어 놓은 점이다.

시 기	시대 구분	연 대
제1기	창종 준비를 위한 불사	총기 원년(1972) 1월1일 ~ 동년 12월23일
제2기	입교개종(立敎開宗)과 창종 후의 교단사	총기 원년(1972) 12월24일 ~ 총기2년(1973) 6월1일
제3기	종제 확립후의 교단사	총기 2년(1973년) 6월27일 ~ 총기7년(1978) 1월20일
제4기	총본산 건설후의 교단사	총기 7년(1978년) 1월24일 ~ 총기 9년(1980) 9월7일
제5기	종조 열반 이후의 교단사	총기 9년(1980년) 9월8일 ~ 현재

## 2. 총지종의 40년 역사

40년의 역사를 시기별, 상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종일인 1972년 12월24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제1기로 정하고 '창종 준비를 위한 불사'를 펼쳤던 시기로 분류하였다. 창종 이전의 역사가 창종과 그 이후의 역사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종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총지종 역사의 제1기로 분류하였다.

### 제1기 : 창종 준비를 위한 불사

제1기의 주요 사실(史實)로는 총지종의 주요 사상(事相) 가운데 하나인 '비밀의계법'의 제정을 들 수 있고, '왕생막'과 '조등(用燈)', '왕생다라니'를 직접 고안하고 제작하여 교도 가정의 장례법을 마련한 사실, 종단의 상징인 '육합상'의 고안, '준제관음상'과 '현도만다라'의 조성, 총지종의 교전인 '불교총전'의 편찬과 총지종의 교리와 실천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라니'를 역경하여 '밀교장경'이라는 제명으로 한 권의 교전으로 편찬한 것이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 하나 역사적인 일제사건은 바로 총지종의 신앙대상자 본존(本尊)을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다라니를 문자만다라로써 봉안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종단의 교역자인 아사리(밀교의 성직자)의 법복인 '법의 의식(衣式)'을 결정할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史實)이다. 총기 원년(서기1972년)

올해가 총기40년이 되는 해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불혹(不惑)에 접어들었다. 적지 않은 역사이다. 총지종의 창종은 이 땅에 밀교종흥의 씨를 뿌린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밀교는 고려에 와서 그 정점을 이룬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선조에 접어들어 승유억불(崇儒抑佛)의 정책으로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특히 밀교는 선교(禪敎) 양종(兩宗)에 흡수되면서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행히 해방 이후에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력(大悲願力)과 밀교종흥의 일대사명(一大使命)으로 한국밀교의 신흥종단을 창종하였으니 그 역사적 의미가 지대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다. 밀교의 비밀의계와 수법을 정리하고 삼밀수행법을 체계화하였으니 한국밀교의 대표종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창종 4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총지종의 창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40년 역사의 발자취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바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자세인 것이다.

11월 11일 서울 총정로 선교부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성사께서는 총지종의 신앙대상인 본존과 불사의식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셨다.

「첫째, 본존은 육자대명을 봉안한다. 둘째, 불전(佛前) 공양물은 헌화(獻花)와 소향(燒香)에 한하고, 정수(淨水)와 촛불은 쓰지 않기로 결정한다. 셋째,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는 신라시대의 상의양식과 같이 깃을 밑에까지 내려서 만들고 소매는 작은 흉타스매로 하며 색조는 백·황·홍·황의 4색으로 사중수법에 맞추어 착용한다. 넷째, 가사는 금가사(襟袈裟)로 한다. 흑자색지(黑紫色地)에 육합상을 세 곳에 백색(白色)으로 자수(刺繡)를 한다. 목에 걸면 뒤 항부(頂部)에 육합상이 보이고 전면은 양

이다. 오늘날과 같은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는 총기30년(2001년)에 개정되었다. 종령의 법의와 금가사는 황색범의에 적색 금가사를, 일반 스승의 경우는 자색 범의에 황색 금가사를 착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1기에 주목할만한 사실(史實)은 창종전의 제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서 일궈낸 불사들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용맹정진하신 창종주 원정 대성사와 선대 스승님들의 대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제2기 : 입교개종(立敎開宗)과 창종 후의 교단사

제2기는 '로서 총기 원년(1972)12월24일 이후에서 총기2년(1973) 6월1일까지로 분류하였다. 창종을 기점으로 해서 종단의 종제(宗制)가 확립되

다. 자성일 공식법회시에 발원하는 공공서원사향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공서원사향은 '움자례주례준제 총지종교세발전 사바하, 움자례주례준제 부국강병국태민안 사바하, 움자례주례준제 조국평화통일 사바하, 움자례주례준제 일체교도가정 소구역의 사바하, 움자례주례준제 일체교도가정제단 사바하'이다.

### 제3기 : 종제(宗制) 확립후의 교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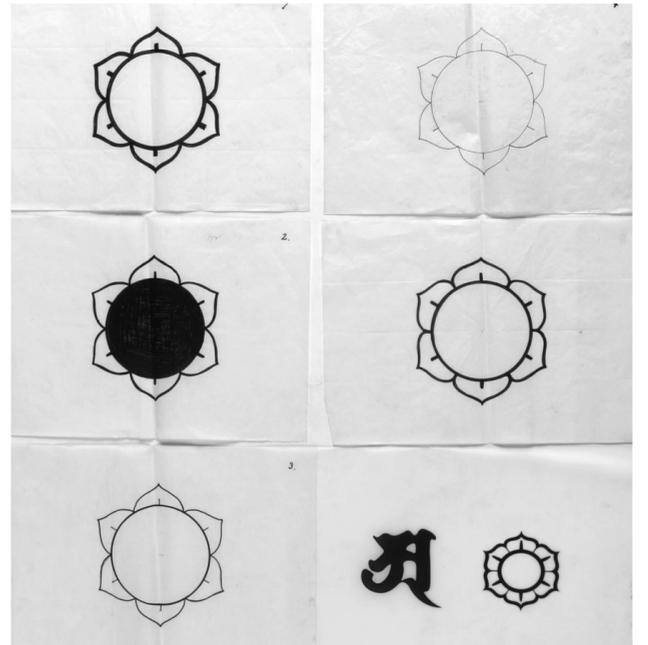
제3기는 총기2년(1973)년 6월에서 총기7년(1978)1월20일까지로 정했다. '종제(宗制) 확립후의 교단사'라 이름을 붙였다. 종단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교화활동을 펼쳤던 시기이다. 교상과 사상면에서도 괄목상대할 발전과 기본토대를 이룬 시기다.

주요 사실(史實)로는, 직제와 행정기구면에서 '종헌종법의 제정, 중앙총의회 기구 설립, 종무행정기구인 통리원과 심의기구인 원의회의 개원' '용달과의 설치', '재단창립총회 개최' 등을 들 수 있고, 교상과 사상의 면에서 '보은사법(報恩施法) 실시' '제1회 강공회 개최' '반야심경 독송 실시' '자성일 대중동참 불사법 실시' '진택불사법(鎭宅佛法) 실시' '종단 찬불가 제작' '전교(傳敎)와 시교(試敎)제도의 실시' '진호국가불사법의 제정' '망자(亡者) 천도관정법(薦度灌頂法) 제정 실시' 등이 다. 특히 동참불사법의 실시에 주목하게 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동참불공은 이

사중수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동참기도법이었다. 그 외에도 '각 사원의 명칭 변경' '투명단종법(投名壇中法) 실시' '정법사법(定法施法)의 실시' 연구기관인 '법장원(法藏院)의 신설' '총본산 건립 착수' '본산 경

'불교방송국(佛敎放送局) 이사 종단 등록'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등록' '종단 제법규의 전면 개정' '불교텔레비전 공동 설립' '양부 만다라 조성 및 봉안' '불단과 닷집의 장엄' 등이 있었다.



▲종조님께서 직접 도안하신 '육합상'의 시안이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육합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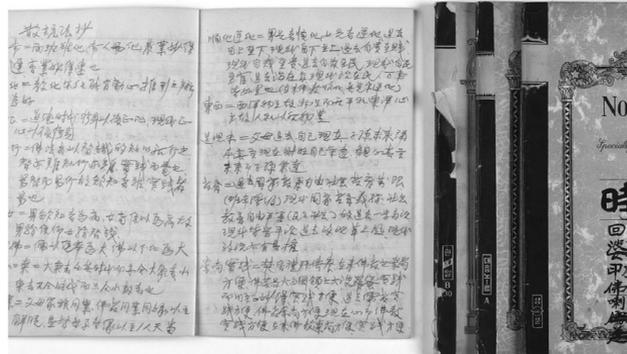
내에 성불탑(成佛塔) 건립' 등이 있었다.

### 제4기 : 총본산 건설 후의 교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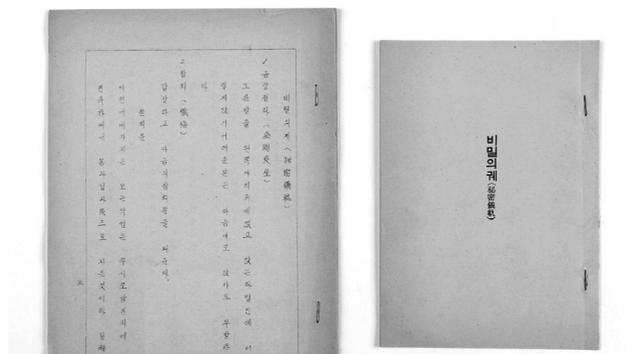
제4기는 총기 7년(1978) 1월24일부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40년의 역사를 주마간산으로 훑어 보았다. 종조님의 승결과 선대 스승님들의 체취를 느꼈을지는 모르겠다.

# 밀교의 비밀의계와 수법을 정리하고 삼밀수행법을 체계화 역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는 발걸음



▲ 종조님께서 불교에 대한 글을 작성한 간이노트.



▲창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총지종의 의례를 마련하셨다. 종조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비밀의계'이다.

기전까지의 시기로 분류하였다. 종제(宗制)가 확립된 시기를 3기로 규정하였다. 제2기의 주요 사실로는 사원도량의 건립과 공식법회 회향서원사향의 결정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사원도량 건립에 주력했던 시기였다. 대부분의 사원이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

시에 만들어졌다. 총기 2년 계속(1973) 11월14일의 일이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매일 공식시간에 동참불공을 올렸던 것이 아니고 1주간 서원불공을 하고 마치는 자성일 공식시간에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와 다른 이의 서원이 모두 성취되기를 발원했다.

터 총기 9년(1980) 9월12일까지로 정하고 '총본산 건설 후의 교단사'라 이름을 붙였다. 제4기의 가장 큰 핵심은 총본산 건립이다.

1978년 1월 19일 총본산을 준공하여 행정기구인 통리원을 총본산 건물로 이전하고 동년 4월 18일 총본산 총지사 설단불사를 봉행하였다.

그 외에도 '가사봉대 및 행유승서식 봉행' '원정 종조님의 제2대 종령추대' '보주수 진언과 보협수(寶篋手)대' '구소법, 준제연명법(准提延命法)의 시행' '총지종의 인사법(성도합시다) 제정' '공덕성취법(십선성취법)의 시행' '염승법 제정' '수법기간과 일체 행사의 양력 시행' '흑백두 수행법(黑白豆修行法)의 시행' '단일정진(單一精進)과 복수정진법(複數精進法)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 제5기 : 종조 열반 후의 교단사

제5기는 '종조 열반 후의 교단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종조님의 열반으로부터 현재까지를 이 시기에 포함하였다.

9월 8일 열반에 드시고 5일장을 마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이다. 1980년 9월 8일 밤11시30분 종조님은 74세의 일기로 세연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5일장의 장례로 다비를 마치고 종단은 새로운 종령체제로 돌입했다.

이후 '종조 사리진건불사' '종조 열반도절 봉행' '교도 결연관정수계 실시' '군부대 장병 위문과 본존만다라 봉안' '장학금 제도 시행' '종립유치원 개원 및 현관불사' '종조법설집' '출간' '??정통밀교 기초문답집?? 간행' '신규스승 시교(試敎)제도 시행'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 개최' '종립 학교법인 설립 및 동해중학교 인수'

총지종의 발자취를 정리해서 재차 말씀드리자면, 제1기의 창종 이전의 역사는 창종을 위한 준비와 교상확립에 전념한 시기였다면 제2기의 창종과 그 후의 교단사는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고 다양한 교화방편을 전개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행적인 면에서나 교리적인 면에서 모든 체계를 갖추어 나갔고, 종단 내외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던 시기였다. 제3기의 종제확립후의 교단사는 말 그대로 종단의 모든 체계를 갖추었던 시기였다. 종제(宗制)를 더욱 확립시키면서 가장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쳤던 시기이다. 제4기인 총본산 건립후의 교단사는 총본산 건립에 전력을 기울였던 시기였고, 그 외에 의례와 제도의 정비를 계속 이어나갔던 시기다. 특히, 스승의 인사이동과 신규스승인명을 통하여 활발한 교화활동의 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그동안은 제도과 의례의 확립에 몰두하여 왔다.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시기였다. 제5기는 종조 열반의 역사가 기준점이 된다. 종조 열반 이후의 종단 모습이다. 종단의 제일 큰 어른께서 열반에 드시어 종단이 자칫 크게 동요될 수 있는 시기이나 중단과 교도가 흔들림 없이 일심으로 화합 단결하여 종단을 꾸려 나갔다는 사실이다. 그 이후의 최근 10년간의 주요 사실(史實)을 들자면, '사회복지재단 설립' '전통시 사원 건립' '국제제가불교지도자대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이후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종조 열반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후학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제대로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들의 몫이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총기 40년 화보 특집

총지종의 발자취



▲ 현재의 본존



▲ 창종당시 본존



▲ 불교총지종 현판식 (1973년)



▲ 총지종보 창간기념식에 참석한 한국불교 종단대표 (1996년)



▲ 어린이 여름 수련회, 과산 수련원 (1993년)



▲ 제 1회 경로잔치, 총지사 3층 강당



▲ 밀교연구소 및 한마음 유치원 준공불사 (1984년)



▲ 한마음유치원 개원에 참석한 어린이들 (1984년)



▲ 춘계 강공회, 총지사 (1987년)



▲ 포항 수인사 전경



▲ 부산·경남교구 해탈절 호국인민 법회



▲ 교도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 밀양 남천강변(1982년)



▲ 호국인민법회 후 체육대회와 오락, 경기 송추 (1987년)



▲ 초파일 연등축제, 서울 동대문 운동장 (2005년)



▲ 통일기원등 점등식, 화천 (1996년)



▲ 국제제가 불교지도자 대회 (2009년)